

“천국에 고용된 말, 주님의 몸을 세우는 말”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183장 다함께

- 1.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 2.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 3.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 4.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후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 도 말은이

성경봉독 야고보서 3:6~10 다함께

⁶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
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
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⁷여러 종
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⁸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⁹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¹⁰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
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I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천국에 고용된 말, 주님의 몸을 세우는 말”

2026. 1. 9. 신년비전새벽기도회 설교

작은 말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균열은 때로 큰 사건보다 평범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 맥락에서 야고보서 3장 6-10절은 짧지만 분명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은 혀의 본질과 출처를 말하고, 7-8절은 혀의 통제 불가능성을 말하며, 9-10절은 혀의 이중성, 곧 신앙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 말은 내 영적 상태의 표현이며, 공동체의 운명을 쥐고 있는 영적 힘”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작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에 금이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고, 매우 절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영적 힘입니다.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입니다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6절). 혀는 작지만 확산력이 엄청나게 크고, 통제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말하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의 세계가 그의 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펼쳐집니다. 그가 세상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의 혀는 듣는 사람에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세상을 펼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상처 주는 말을 단순한 실수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파괴적인 영적 근원을 가진 문제로 봅니다.

※ 혀는 불처럼 작지만 강력하며,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과 공동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혀는 저절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7-8절).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8절). 독사가 품은 독이 온몸으로 퍼지듯, 악한 말에 노출되면 그 독이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 안으로 퍼집니다. 그러므로 혀는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혀는 자동적으로 공동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자꾸 부정적이고, 낙심시키고, 꾸짖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구나.” 그리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 혀는 저절로 선해지지 않기에, 성령 안에서 훈련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신앙의 모순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이 무서운 입으로 “주 하나님을 찬송”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고 말합니다(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럴 수 없으며, 그래서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단지 곱고 험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낙심시키고, 실족하게 하며, 생명의 힘을 앗아가는 말은 지옥 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고, 특정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곧 나는 의롭고 당신은 고쳐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곧 문제의 원인을 상대의 감정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같은 말도 걸으로는 예의 있어 보이지만 상대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 찬송하는 입으로 사람을 해치는 말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심각한 신앙의 모순입니다.

결론: 성도는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천국에서 흘러나온 말을 자주 연습해야 합니다. (1)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살어나게 합니다. “그 일 쉽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해주셔서 참 귀합니다.” “말은 많지 않으셔도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 격려하는 말은 지친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집사님, 지금 힘드시지만 혼자 걸으시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있어요.” (3) 온유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지지해 줍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4) 감사하는 말은 공동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 수고가 지금 공동체를 살리고 있습니다.” (5) 책임지는 말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건 제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더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6) 침묵의 말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답장을 미루며, 뒷말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훈련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 나눔

- 1 야고보서 3:6-10에서 혀는 무엇에 비유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함께 찾아봅시다. (힌트: 혀는 곧 0이요, 00의 세계라 / 쉬지 아니하는 0 / 죽이는 0 / 한 입에서 00과 00가 나옴)
- 2 공과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혀는 자동적으로 공동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3쪽). 내가 무심코 반복하는 부정적인 말, 낙심시키는 말, 꾸짖는 말, 비난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령 안에서 어떻게 절제하고 훈련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 3 성도는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천국에서 흘러나온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온유한 말, 감사하는 말, 책임지는 말, 침묵의 말 가운데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한 가지 말은 무엇입니까?
- 4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